



01

- [1] 1947년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새롭게 발견되는 각각의 문서마다 포상금을 걸었다.
- [2] 다량의 두루마리가 추가로 발견되는 대신에 포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들은 그저 찢겨 나뉘어졌다.
- [3] 이와 유사하게 19세기 중국에서는 공룡의 뼈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 포상금이 주어졌다.
- [4] 농부들은 그들의 토지에서 몇 개를 찾아내어 그것들을 조각으로 부수고 많은 돈을 벌었다.
- [5] 현대의 장려금 또한, 더 나올 것이 없다.
- [6] 회사의 이사회는 달성된 목표에 대해 보너스를 주겠다고 약속한다.
- [7]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?
- [8] 관리자들은 사업을 키우는 것보다 목표치를 낮추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다.
- [9]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행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에 반응한다.
- [10]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로 장려금이 시행될 때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빠르게,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는가이며,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장려금의 이면에 있는 높은 차원의 의도가 아니라 장려금 그 자체에 반응한다는 사실이다.



02

[1] 르네상스의 가장 흥미를 돋우는 그림들 중 하나는 Albrecht Durer가 그린 잡초가 무성한 지대의 정교한 묘사이다.

[2] Durer는 우리가 평소에는 다시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을 잡초나 풀이 겹보기에 아무렇게나 모여 있는 것로부터 디자인과 조화를 끌어낸다.

[3] 그러한 평범한 사물을 취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순수한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.

[4] 이와 유사하게, 과학자들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흔히 보잘 것 없는 대상을 연구하도록 선택한다.

[5] 비교적 단순한 체계를 연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복잡함을 피하고 보다 깊은 통찰력이 얻어지도록 할 수 있다.

[6] 이는 우리의 학습하는 능력만큼 다루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특히 그러하다.

[7] 인간의 반응은 너무 복잡해서 객관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.

[8]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 박테리아나 잡초와 같은 좀 더 보잘 것 없는 생물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.



03

- [1] 즐겨 찾는 웹사이트들은 때때로 사용자들을 오랜 친구처럼 맞이한다.
- [2] 온라인 서점은 이름으로 고객들을 환영하며, 그들이 읽고 싶어 할 수도 있는 새로운 도서를 제안해 준다.
- [3] 부동산 사이트는 시장에 나온 새로운 부동산에 대해 방문자들에게 알려 준다.
- [4] 이러한 기술은 인터넷 서버가 사용자들을 기억해 낼 수 있도록 개인의 웹브라우저 안에 저장하는 작은 파일인 cookie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.
- [5] 그러므로 cookie는 개인에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.
- [6] 예컨대, cookie는 사용자가 매번 구입할 때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이름과 주소를 입력해야만 하는 귀찮은 일을 덜어 준다.
- [7] 하지만,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추적할 수 있는 cookie가 기업체나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축적하도록 도움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.
- [8] 보안은 또 다른 우려인데, cookie는 공유 컴퓨터를 훨씬 덜 안전하게 하고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입하게 할 많은 방법을 제공한다.



04

[1] Dworkin은 어떤 한 종류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고전적 주장을 제시한다.

[2] Dworkin의 관점에서 정의는 한 사람의 운명이 운이 아닌 그 사람의 통제 내에 있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요구한다.

[3] 행복에 있어서의 차이가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면, 그 차이는 불공평하다.

[4] 이 주장에 따르면,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 행복의 불평등은 허용 가능하다.

[5]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면서 개인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막는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행복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[6] 우리는 기회의 평등 또는 기본적인 자원에의 접근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그렇게 한다.



05-06

[1] Science지에 게재된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,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 탑승자를 희생하도록 프로그램 된 운전자 없는 자동차들, 즉 자율자동차(AV)에 대하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찬성하지만, 이 동일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율자동차를 본인이 스스로 타는 것에 대해서는 열광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.

[2] 2015년 미국 주민들에게 실시된 6개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연구자들은 (조사)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자율자동차(AV)가 어떻게 작동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.

[3] 설문조사에 포함된 시나리오들은 다른 요인들 중에서도, 구할 수 있는 보행자와 탑승자의 수를 달리했다.

[4] 예컨대, (조사)참가자들은 AV가 10명의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승객을 희생시키는 것이 더 도덕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.

[5] 조사 참가자들은 AV가 공리적이고 보행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, 이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보다 차량 밖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.



[6] 하지만, 이 (같은) 응답자들은 자신들과 탑승자를 보호하는 차량의 구입을 선호하는데, 특히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경우라면 그렇다고 말했다.

[7] 이것은, 만약 자기방어적인 AV와 공리적인 AV가 모두 출시된다면, 남들이 타는 것은 선호할지언정, 후자(공리적인 AV)에 선뜻 타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.

[8]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윤리적 긴장을 설명하는 이러한 불일치는 분석된 광범위한 설문 시나리오에서 지속되었다.